

완산수영장 매점 '바가지 요금' 논란 확산

**가격표 없는 품목 버젓이 판매
 "시중보다 비싸다" 이용객 불만
 불친절 응대 논란까지 도마위
 시설관리공단 관리 부실 책임론**

〈1〉 전주 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이자 운동 공간인 완산수영장이 운영상의 허점을 드러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 내 매점의 비합리적인 가격 책정은 물론, 기본적인 위생 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 관리의 주체인 전주시설관리공단이 방관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본지는 완산수영장을 둘러싼 각종 민원 사항을 정밀 추적해 공단의 관리 소홀과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전주시 완산수영장 내 구내 매점 운영을 둘러싸고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식·음료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가격표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품목이 있는 데다, 불친절한 응대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공공시설 편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완산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매점에서 판매 중인 일부 음료와 간식 가격이 인근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높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운동 후 간단히 이용하는 커피와 음료, 간식류 가격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다.

수영장을 자주 찾는 시민 A씨는 "공공 시설 안에 있는 매점이라 시민 편의를 우선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가격은 일반 매장보다 비싸게 느껴졌다"며 "운동 후 간단히 음료를 사 마시려다 가격을 보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가격 표시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샌드위치 등 일부 음식 가격은 매대에 표시돼 있었지만, 삶은 계란 등 일부 품목은 가격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이 계산 과정에서야 가격을 확인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가격 정보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운영 방식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이용객은 "가격표가 없는 품목은 선택 집기 어렵다"며 "공공시설 내 매점이라면 최소한 가격 정도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매점 점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객들은 제품 가격이나 구성 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반응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 B씨는 "가격을 물어봤는데 귀찮다는 듯한 태도로 응대에 당황했다"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서비스 역시 기본적인 친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공단이 단순 임대 관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격 적정성과 가격 표시 여부, 이용객 응대 문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편의시설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공공시설 내 매점은 일반 수익시설이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시설관리공단이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매점은 공개입찰 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영장 주변 업체 가격과 비교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성기원 기자



**김관영, 이원택 역공
 "내란몰이" 책임져야"**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란특검 무혐의 통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관영 예비후보측>

민주 도당, 전북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첫 회동

**도지사·14개 시군 후보 한자리에
 地選 앞두고 전북 원팀 행보 본격**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들과 지난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대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하나 된 힘으로 당의 단합과 전북 발전을 위한 공동 의지를 다지기 위해 모였다.

기자회견은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 최정호 익산시장 후보, 양충모 남원시장 후보,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 최훈식 장수군수 후보, 한득수 임실군수 후보,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등이 함께 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후보자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원팀의 모습을 전북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여기 계신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님 비롯해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님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지역 곳곳의 변화를 이끌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6.3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약속이 아닌 결과로서 도민 주권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장정철 기자

김관영 '내란방조' 무혐의 이원택에 "정치생명 약속 답하라"

**김 예비후보, 특검 통보 공개
 "거짓 내란프레임 책임져야"**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가 내란방조 의혹에서 벗어났다.

지난 2월 한 김제시민의 고발로 특검 수사가 진행된 지 3개월 만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권장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본인에게 제기했던 내란 방조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통보서를 전날 밤 전해왔다"면서 "그동안 묵묵히 지켜봐 주신 도민여러분과, 특검조사라는 수치를 감내해 준 공직자, 뒷받침 명예를 참아내고 따라와 준 5000여 공무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특검은 통보서를 통해 내란부화수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3개항의 고발죄명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적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내란 동조는 없었고, 전북도청 폐쇄도 없었으며 계엄에 동조한 사실 또한 결코 없었다"며 "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오늘 진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는 저 김관영 개인의 억울함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 규명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를 위해 내란몰이에 나서고, 성실한 공무원들을 의심의 시선 앞에 세운 것은 단순한 선거 공방이 아닌 전북도정에 대한 모욕이자, 전

북 공직자에 대한 모욕이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전북도민을 모욕한 정치적 폭거였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6회나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동조 의혹을 제기했고, 스스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정치인은 자신이 밝은 말에 목숨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며, 거짓으로 도민을 모욕했다면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원택 후보는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거짓말로 전북도정과 공직자들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선거를 위한 내란프레임으로 도민을 모욕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즉각 도민 앞에 답을 내야 할 것"이라고 공박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마저 단지 선거용 구호가 아니었다면, 이제 그 말의 무게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저는 이원택 후보의 '대국민 사기극, 도민 모욕의 정치'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예비후보와 이 후보는 지난 3월 9일과 12일 각각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특검조사를 마친 뒤 "정치인이 한번 배운 말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며 "특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계 은퇴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장정철 기자

국힘 도당 "청년들이 밥 사달라 했나?"

"청년 동원 정치 끝내야" 비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전북의 청년들이 대리비를 달라고 했습니까, 밥을 사달라고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도당은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후보와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원택 후보는 지금 서로 자신이 더 나은 후보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두 후보에게 묻고 싶다. 두 후보는 선거 과정에 연루된 죄 없는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를 하셨나"고 말했다.

또 "전북의 청년들은 누군가의 선거를 위한 동원 대상이 아니며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다"며 "국민의힘은 청년을 정치의 도구로 소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태어나 배우고, 꿈을 키운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전북이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초록단풍명소
내장산
 쏟아지는 햇살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초록빛 바람
 좋은 이들과 즐기는
 여름날의 내장산....

#내장산 우화정
 #내장산 단풍터널

정읍시

안호영 측 핵심 참모들, 김관영 캠프 속속 합류

김관영·안호영 정책연대 인연 安 핵심 참모 20명 金 캠프 결집 “민주당 지도부 전횡 맞설 것” 무소속 김관영 캠프 세 확장

6·3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의 선거캠프가 공식 출마선언 하루 만에 후끈 달아올랐다.

8일 오전 김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자리 잡은 전주시 완산구 효천지구 빌딩에 손님 20명이 찾아왔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국회

안호영 의원 측 핵심 참모들. 김관영 예비후보와 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끈끈한 우의를 다져온 사이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2일 정책연대를 위한 기자회견까지 예정했지만, 김 예비후보를 향한 갑작스런 중앙당 윤리감찰이 시작되면서 1시간 전 무산됐다.

이후 안 의원은 경선 일정 연기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 차이로 이원택 의원에게 석패했다. 안 의원은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12일 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에 실려갔다.

이 같은 과정을 상처로 받아들이며 분위기를 삼켜왔던 안 의원 측 핵심 참모들

이 이날 김관영 캠프 참여를 확정했다. 합류 인사는 김호서 선대본부장, 김영주 상황실장 등 20명이다.

김관영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선거캠프에서 이들과 공식 환영식을 갖고 두 손을 맞잡았다. 김 예비후보는 안 의원 측 참모들이 상황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 선거를 이끌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상황실장을 맡게 된 김영주 씨는 “당적이 있는 분들까지도 정치적 보복을 감수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오만과 전횡에 맞서기 위해 동참을 결정했다”며 “도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도 민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서 안호영 캠프 선대본부장은 “정책연대를 통해 힘을 모으려 했으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경선은 민주당 정경래 지도부가 개인의 영달과 사익을 위한 전대미문의 불공정 행태를 드러낸 만큼, 반드시 승리해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예비후보는 “사측생의 각오로 모두 힘을 모아 열심히 뛰면 도민들께서도 우리의 진심과 진실을 알아 주실 것”이라며 “도민들의 손을 잡고 변화의 물꼬를 터내는 데 진력해 나가자”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정철 기자

조배숙 야당 몫 국회부의장 출마 ‘협치 복원’

국회 개혁·민생 협치 강조 “호남의 딸, 통합 마중물 될 것”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제22대 국회 하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경선에 나섰다.

조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보다 정쟁이 앞서는 국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참담함과 피로감을 생각하면 5선 중진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국회는 변해야 한다. 단순히 싸우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돼야 한다”며 국회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유리천장을 깨고 대한민국 모든 내일의 희망이 되겠다”며 “5선의 경륜을 민생을



조배숙 의원

위한 협치 도구로 쓰겠다. 호남의 딸 조배숙이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 통합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부의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얼마나 과감하게 혁신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면서 “심자기를 지는 마음으로 앞장서겠다. 낡은 관성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신뢰를 되찾는 길에 모든 정치적 자산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하반기 국회 국회부의장 및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전역 국가도로망 구축 ‘가속도’ 국도·국지도 본격화

성수~진안3 구간 6월 개통 예정 노을대교 실시설계 착수 본격화 국지도 사업 하반기 착공 잇따라 국도·국지도 선순환 추진체계 구축

전북도는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함께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을 준공·착공·설계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전북 전역 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각 사업이 맞물려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단순한 공정 진척을 넘어 ‘전북 교통지도의 전면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우선, 국도30호선 성수~진안3 구간이 오는 6월 개통된다.

협소한 도로 구조와 선형 불량으로 오랫동안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이 구간은 개통과 함께 상습 정체 해소, 교통사고 위험 감소, 지역 간 이동성 향상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가져올 전망이다. 무주 설천~무풍 구간은 5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 착

공에 들어간다. 서해안 핵심 인프라인 노을대교(국도 77호)는 지난 4월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국도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을 잇는 이 사업은 완공 시 기존 70분이 걸리던 이동시간을 10분대로 단축해, 전북 서해안 경제·관광 인프라를 완성하는 핵심 축이다.

설계를 마친 사업들도 공사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고창 상하~해리, 부안 운호~석포 구간은 지난 3월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발주에 들어가 상반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지도 분야에서는 순창~구림(국지55호), 정읍 부전~칠보(국지49호) 구간이 설계 완료 후 발주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설계 단계에 머물렀던 국지도 사업이 실제 공사로 전환되는 분기점을 맞췄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배경에는 행정 절차의 선제적 병행 추진이 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총사업비 협의, 실시설계 완료, 설계도서 이관 등 후속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도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계약 심사, 일



노을대교 조감도

<사진=고창군>

상 감사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설계에서 착공으로 이어지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예산 협의나 인허가 지연 등 고질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북에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국도 16개 사업(168.2km, 약 2조 4,700억원)과 국지도 7개 사업(42.9km, 약 5,300억원)으로, 전북 전역을 잇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동시에 조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도관리청·전북자치도·시군·지역 국회의원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각 사업 단계별 공백을 줄여나가고 있다. 각 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선제 대응, 인허가 절차 단축,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등을 통해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속도 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정정철 기자

윤준병, 농어업·인구정책 14건 입법 ‘성공’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통과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법안 반영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업 현안 해결과 국가적 미래 전략인 인구정책 마련 등을 위하여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1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농어촌의 해묵은 과제 해결은 물론 인구 위기 등 국가적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윤 의원의 폭넓은 의정 수행 능력과 정책적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관련 법안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지법 개정안(2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안, △해운법 개정안 등 총 11건이다.

이 중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해 농지 전수조사

의 기틀도 마련했다. 한편 국가적 과제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촌 빈집 정비법과 연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도 함께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읍·고창을 비롯한 농어촌의 현안 문제 및 국가 핵심 아젠다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비료값 급등 대응 113억 긴급 투입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46억 증액 영농철 재고·원자재 선제 확보

전북도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는 농가를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113억 원을 투입, 농가 경영비 절감과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

응해 전체 사업비를 당초 67억 원에서 113억 원(국비 33억 9,000만 원·도비 6억 8,000만 원·시군비 15억 8,000만 원·농협 33억 9,000만 원·자담 22억 6,000만 원)으로 46억 원 증액했다.

이 사업은 가격 급등으로 오른 무기질 비료 구매비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가는 지역농협을 방문해 지원 대상 비료를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6월 영농철 재고분과 요소 원자재 8월 생산분까지 확보해 상반기 영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수요 및 과잉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농협과 공조해 농가별 월별 적정 판매수량 제한과 비료 적정 살포를 유도하는 등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각에서 불안 심리로 실제 필요량보

다 과다 구매하는 사례도 있어, 도와 시군·농협이 협력해 월별 적정 물량을 공급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앞서 7일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농협전북지역본부 양곡자제단장과 함께 부안군 남부안농협 자제센터를 직접 찾아 무기질 비료 수급 동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협 자제판매장의 제품 수급 및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과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김은지 기자

운전 중 졸음이 올 때 당신의 대처 방법은?

후려 상쾌한 공기 창문 열어 환기하기

장래의 운전 필수템! 껌 씹기

워니 워니 해도 자는 게 최고! 졸음 쉼터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흥의 민족! 노래 부르기

2027년 전주시 국비 확보 '정조준'

윤부시장부처예산안확정전 실·국·장 중심 중앙부처 방문

전주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한 전방위적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에 윤동욱 부시는 '국가예산 부처 단계 활동결과 보고회'를 열고 그간 부처 방문 결과와 향후 국비 확보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보고회는 중앙부처가 이달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부처 단계에 전주시 핵심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 주요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 △전주 AI 가상융합 미래기술 실증혁신 기반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주시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사업들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 특화 분관 건립'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 예술도시이자 책의 도시, 조선헌정실록이 유일하게 보존된 전주사고와 함께 대한민국 기록문화의 중심인 전주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문화예술분야)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남부권에 문화예술 분관을 설치,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보장 및 문화산업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기술 진단 및 타당성 조사 결과와 폐기물 예상 발생량 증가에 따라 완산구 정영리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주 광역권(전주, 완주, 김제, 임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주권 청소행정 의 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전주 AI 가상융합 미래기술 실증혁신 기반 조성' 사업은 AI 및 가상융합 산업 육성과 확장을 통해 혁신적 제조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신산업 가치창출을 위한 실질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갖춘 AI 기반 가상융합산업 거점

을 조성, 전주가 일류 디지털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손꼽히는 사업이다.

이외 시는 이날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사업과 전주시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전략 사업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가며 각 사업에 맞는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중앙부처 단계 국가 예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에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정치권과 연계한 전방위적 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제104회 어린이날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

전주 어린이날 행사 개최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월간어진'의 2회차 강좌 "단종과 세조, 그들을 향한 시선"을 오는 14일 운영한다. 강좌는 올해 계획된 월간어진 총 5회 과정 중 두 번째 시간이다.

이날 기록 속에 투영된 단종과 세조를 향한 당대의 시선을 조명한다.

강연은 조선사와 성리학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해온 오항녕 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오 명예교수는 오늘날 우리의 시선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적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월간어진'은 전주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인문학적 소양 및 박물관과 연계된 문화유산 이해 증진을 위해 개설된 교양강좌다.

강좌에 이어 △어진에 담긴 조선



왕실의 복식(6월18일) △조선 왕실의 전주 성역화 프로젝트(7월16일) △태조 진전에 담긴 건축 특성과 공간 구성(8월13일) 등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 및 현장 참여로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회차별 2주 전부터 어진박물관 누리집 내 예약 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스마트팜 전시로 미래 농업의 문 열다!

시민들에게 스마트 농업 가치·미래 가능성 알리

전주시가 전시형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미래형 농업 기술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은 지난날 25일~26일과 지난 1일~3일까지 진행된 '2026 전주 이팝나무 축제'에 이어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펼쳐지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기간에도 전시형 스마트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이팝나무 축제기간 스마트 재배 시설이 마련된 컨테이너 스마트팜 전시 공간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수가 스마트농업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시민 참여형 체험이 진행된 현장에는 하루 평균 700여명, 연인원 3000여명이 모종심기 체험에 참여해 흙을 만지고 식



전주시가 전시형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미래형 농업 기술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물을 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생육주기별 유럽

상추와 야생화 등 다양한 작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정소민 기자

또 자동화된 스마트팜 기술과 어우러진 미래형 재배 환경은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 농산물 공동브랜드 '한옥애플' 홍보를 위해 홍보 부채 배부와 포토존도 운영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번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는 우리쌀 소비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뽕튀기 시식 코너와 우리쌀 누룽지 판매 부스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이 지역 농산물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스마트팜 운영에는 스마트팜과 원예시스템 등을 전공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와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 기상지청 '여름철 방재기상정책협의회'

23개 방재기상 관계기관

여름철 주요 방재기상대책 논의

전주 기상지청은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2026년 여름철 방재기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위험기상으로부터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방재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대책기간 중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 등 지방정부와 소방, 교육, 산림, 수문 등 재난 대응 23개 기관이 참석해 여름철 기상재난 합동대응을 준비했다.

협의회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위험기상으로부터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방재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북도 및 전주시 등 지방정부와 소방, 교육, 산림, 수문 등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총 23개 기관이 참석해 여름철 기상재난 합동대응 준비를 논의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보건소 약물 통합건강관리 역량 강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 안전한 약물 사용 교육 진행 올바른 약 복용법·보관법 등

최근 건강관리 상황에 의한 올바른 약 복용법과 약물 보관법 등 통합건강관리 교육이 진행됐다.

통합건강관리 교육은 만성질환 등 다

종의 약물 장기 복용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안전약물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지난 8일 "전주시 거주 장애인 및 보호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약물 사용 통합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대한약사회 소속 의약품안전

교육 전문강사가 초빙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올바른 약 복용법(식전·식후 복용 준수 등) △약물 유통기한 확인 및 보관법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약물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방법 등이다.

특히 교육은 여러 종류의 약을 혼동해 복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복약 상담도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그룹 및 방문재활운동 서비스 △사회참여 프로그램 △장애발생 예방 등 다양한 장애인 재활보건사업 설명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며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 향상을 도모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연합행사 개최

청소년의 '나·다움' 응원

'청소년의 달' 5월 전주시 청소년들의 빛깔을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사동 중앙살림광장에서 '2026 전주시 청소년의 달

기념 연합행사'를 개최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청소년시설협의회(전주시 11개 청소년시설 연합단체)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있는 그대로 빛나는 우리·나·다움'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타인의 기준이 아닌 각자가 가진

성과 잠재력을 당당히 드러내고 응원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행사는 우수청소년 및 지도자 시상 시작으로 청소년동아리연합회 공연과 테마별 체험부스 운영 등이 이어졌다.

특히 '동아리연합회 공연'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이 댄스와 노래, 치어리딩 등

동안 갈고닦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또 '참여'와 '다양성', '성장' 등을 주제로 청소년들의 체험을 위한 부스도 운영됐다. 구체적으로, 체험 부스에서는 △먹거리 △캐릭터 △무드 등 만들기 △추진력 게임 △키링 만들기 △보드게임 등 청소년들의 흥미와 창의성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본부 '119통역봉사단 소통 간담회'

14개국 통역봉사단과 협력 강화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8일 전북가족센터와 함께 '119통역봉사단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본부장은 외국인 신고자에 대한 원활한 119 대응체계 강화와 통역서비스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외국인 119신고 증가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통역봉사단과의 소통을 통해 통역서비스 품질 향상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신규 통역봉사단원 27명이 추가 위촉되면서 기존 운영 인력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신규 통역봉사단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운영 현황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김영태 기자

이날 실제 통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가족센터는 지난 2023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외국인 신고자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119통역서비스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현재 119통역봉사단은 14개국 언어, 111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신고 접수 시 '119상황실·신고자·통역봉사자'를 연결하는 3자 통화 방식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통역봉사단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 외국인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문화 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119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금암노인복지관 어버이날 기념 '금암감사제' 진행

어버이에 대한 감사 마음 전해 장한어버이에 표창 수여

가정의 달 5월 금암노인복지관 2026년 어버이날 기념행사 '금암감사제'가 개최됐다. 행사는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암감사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지역사회 노인 1160여명과 함께 복지관 앞마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복지관 개관 이후 25년 만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완공을 기념하는 '탐승식'이 마련되며 어버이날 기념행사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서는 장한아버이 및 사회복지 유공자에 대한 전주시장 표창 수여와 캐비이션 전달식, 기념 촬영이 이어



했다.

행사는 △노블리스 미용봉사단 메이크업 서비스 △전주중앙신협 먹거리 부스 △효자보정기 청력검사 △SK브로드

밴드 스마트폰 교육 및 상담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복지서비스가 추가 운영됐다.

/정소민 기자

전주 송천초 학부모회, '기부 릴레이' 올해도 이어져

전주송천초 학부모회 기부 릴레이가 2026년에도 이어졌다.

지난 6일 송천초등학교 서영태 교장을 비롯 학부모회원은 송천2동주민센터 최현미 동장에게 라면 20상자를 전달했다. 송천초 학부모회의 이번 기부금은 4월 교내 헌 옷 수거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송천초 학부모회 나눔 실천은 △2023년 라면 40상자 △2024년 김선물세트 35상자 △2025년 라면 20상자 등을 기부하며 기부릴레이를 해마다 이어가고 있다. 이로서 송천초 학부모회 기부는 올해 4회를 맞이했으며 기부된 라면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TP, 중소기업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 지원

내달 8일까지 R&D 기술사업화 2차 접수 기업 경쟁력 강화 목표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매출 100억원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애로 해소 및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R&D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지난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

사업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을 지원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에는 공모형(30건), R&D 연계형(5건), 글로벌대학 연계형(5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며, 이번 2차 접수에서는 공모형 약 15건과 R&D 연계형

2건, 글로벌대학 연계형 3건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형은 도내 소재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4백만원 이내 지원과 4개월 사업 기간,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글로벌대학 연계형은 전북대학교 또는 원광대학교가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며, 지원 조건은 공모형과 동일하다.

R&D연계형은 도내 소재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벤처기업 중 국가 또는 지역 R&D 과제 수행 후 성공 판정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최대 40백만원 지원하며 4개월 사업 기간,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공모형, 글로벌대학 연계형 유형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됐으며 구매확약서를 제출한 과제를 대상으로 공인시험 성적 발행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전북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R&D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적 애로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기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를 활용하면 된다.

접수는 전북 R&D종합정보시스템(http://md.jb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김제 광활 하우스감자' 홍보

판촉행사 진행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농협 하나마트(전주 유통센터 및 수도권 대형유통센터)에서 김제광활 하우스감자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김제 광활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간척지 토양에서 재배돼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바다에서 맛따르리는 해풍이 천혜의 조건으로 작용해 육질이 단단하며 당도가 높아 밥감자로 불리기도 한다.

또 맛이 좋고 영양도 많아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크게 효능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식품

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김제 하우스 감자는 지난해 35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김제 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도 높고, "농심전심의 가치 아래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권 농협 최대 판매장인 농협전주유통센터(여의동 소재)는 농특산물판매 활성화와 원스톱 쇼핑을 위해 800여평 규모의 다이소

를 임점시키는 등 고객 맞이 새단장이 이뤄졌다. /김영태 기자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참가자 모집

전통음악 창작자 발굴... 26일까지 접수

전주세계소리축제가 한국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26 소리프론티어' 참가자를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소리프론티어'는 전통예술 음악 분야의 창작자와 단체를 발굴·육성하고 국내외 공연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돼 온 소리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 소리프론티어는 지난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 선정 축제'의 일환인 '소리 NEXT' 사업과 연계해 운영된다.

'소리 NEXT'는 소리축제가 전통예술 분야의 시장 거점축제로서 국내외 유통과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창작자와 공연 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소리프론티어는 단순 경연을 넘어 개인 및 창작단체의 음악적 방향성과 시장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성장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심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차 음원·영상 심사를 통해 상위 10팀 내외를 선정하고, 2차 실연 심사를 거쳐 최종 4개 팀이 선발된다.

선정된 팀들은 3박 4일간 진행되는 합숙형 워크숍 '슈퍼워크'에 참여해 멘토링과 네트워킹, 창작 방향 확장 등을 진행하며, 슈퍼워크 수료한 단체는 이후 쇼케이스 실연을 통해 국내외 텔레비트와 일반 관객 앞에서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최종 선정팀에게는 해외 쇼케이스 추진을 위한 항공, 숙박, 체재비 등이 지원되며, 오는 11월 헝가리 현지 공연이 예정돼 있다.



<사진=전주세계소리축제>

모집 대상은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자체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음악을 제작하고 실연하는 개인 및 단체라면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6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용 구글폼(https://forms.gle/5Mg3t51mby8Yz6E7)

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은 이메일(soriprogram3@sofestival.com)로 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경진원 '설립 전 입문 과정' 공동체 모집

신규 마을기업 육성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차년도 마을기업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을기업의 기초 개념과 설립 절차를 안내하는 입문 과정으로 내달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소재지 관할 각 시·군청의 마을기업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공동체는 조합원 5인이 반드시 7시간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향후 신규 지정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소득 창출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 경제 조직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는 총 129개의 마을기업이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운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마을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공동체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와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및 마을기업 지원사업 문의는 경진원 사회경제적경제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 "전기차 이용 안심 충전 환경 조성 앞장"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성 향상 도모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기차 충전 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 31개사에서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미나는 충전시설 관련 최신 제도 변화와 기술 정보를 공유하며 업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기술적 방안 △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최근 시행된 관련 법령 안내 △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업무처리 방법 및 기준 공유 △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업계 현안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수렴한 업계의 건의사항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돕고, 충전소 운영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화영 사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전기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차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할에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 외화금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우리은행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관리 계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화고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외화고은행 선정 입찰 공고를 낸 이후 제안서 접수 및 심사과정을 거쳐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외화고은행 선정은 2021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역량이 있는 국내 은행들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자격에 동일 금융지주의 업무영역 개수 제한을 완화했으며 사업 설명회도 개최했다.

공단은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현장

실사와 기술 협상을 마친 뒤 6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국민연금의 외화고은행으로 선정되면 기금의 외국환 거래 관련 출납업무, 외화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을 도맡아 하게 된다.

2026년 2월 말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610조원이며 이 중 약 55%인 886조원이 해외자산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진만큼 안정적인 외국환 거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금의 외화 거래 및 자금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번 외화고은행 선정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수립 착수

농업 기반 에너지 전환 및 소득 증대 연계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산업계 및 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 전환을 기우하기 대응,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됐고,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고에너지성과 가격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

농업분야 역시 AI·그린 전환(AI/GX), 스마트팜 확산 등으로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식량안보와 조화를 이루면서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 등의 농업기반과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에너지 전환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는 김중구 농식품부 차관이 단장을 겸직하고 농산혁신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국장급을 반장으로 △농촌 에너지 자

립단 △농업 에너지 전환반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 등 총 3개반을 운영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도 운영해 방안 마련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TF 1차회의에는 ▣농촌 생활 전반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가속화하고, 소득 증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 집중 모색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가치사슬내 에너지 구조의 저비용·고효율 전환 기반 마련 검토 ▣대규모 농업기반과 바이오매스 등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가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기여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김중구 차관은 "에너지 안보가 곧 식량 안보이다. 국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기본원칙과 성과 지표의 설정,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TF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에서 채굴할 수 있는 재정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에너지 전환이 농업·농촌의 에너지 자립과 함께,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JB 슈퍼씨드 적금 X 미니창고 다락'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적금상품 가입 고객에게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제공하는 'JB 슈퍼씨드 적금 X 미니창고 다락' 제휴 이벤트를 오는 7월 29일까지 진행한다.

'JB 슈퍼씨드 적금'은 기본금리 3.3%의 정액적립 상품으로 정상납입 기준 매월 1개의 씨드(가입기간 최대 11개)를 제공하고 제공된 씨드가 슈퍼씨드인 경우 10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1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전북은행의 대표 스테디셀러 상품이다.

또 지난 2023년 10월 첫 출시 이후 많은 고객들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행의 대표 인기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난해 7월 1인 1계좌에서 1인 다계좌로 가입기회가 확대됐다.

이벤트는 JB 슈퍼씨드 적금 신규 가입 고객에게 국내 대표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의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저축 습관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일상에서 바로 누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혜택을 드리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 혜택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모바일뱅크 '축뱅킹' 또는 전북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유성동 사퇴... “오해 살 표현 썼으나 대가 없었다”

단일화 직후 터진
녹취록 해명...
“나는 정치 초보”



유성동

“최근 공개된 통화 녹취와 관련해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오늘 교육감 예비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선택과 판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어떠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

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하지만 전호성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대가 약속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유 후보는 지난 7일 전호성 후보와 교육격차 해소 등을 내세우며 정책 연대 및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다.

단일화 선언 직후 유 후보 캠프 총괄전략본부장 A씨가 전호성한테 간다면, 최소한 정책국장은 약속받고 가는 것”이라는 유 후보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폭

로하면서 ‘이면 거래’ 논란이 일어났다.

이날 이남호 예비후보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책국장 자리 거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 후보는 전 후보 캠프에 들어가면 맡게 될 자리에 대해 “저는 선거·정치 초보라 전 후보 측 선대위가 발족되면 그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을 대할 때 신의로 대해야 한다는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도민들께 사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14개 시·군 상생
모델 기획 노력 인정

올해 9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주최하는 ‘2026 새만금 로컬 페스타’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지역 유망 마이스(MICE) 행사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선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북 지역의 특화·유망산업과 연계한 마이스 행사를 발굴

하고 지역 마이스 산업의 기반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으며, ‘2026 새만금 로컬 페스타’는 전북 14개 시·군의 미식, 여행, 문화 등 특화 자원을 한데 모아 지역 상생 모델을 기획했다는 점이 공모사업 목적과 잘 부합했다는 평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본 행사는 행사장 조성, 부대행사 개최, 홍보 마케팅 등 행사 운영 전반에 필요한 예산 1,6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로컬 크리에이터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MICE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특산물 기반 미식 경험을 선보이는 ‘맛있는 로컬’ △14개 시·군 관광 정보를 체험형으로 전달하는 ‘즐거움 로컬’ △별빛 스테이지 공연과 불꽃 연출이 어우러지는 ‘머무는 로컬’ △뉴트로와 제로웨이스트를 결합한 ‘찾아낸 로컬’ 등을 마련해 참가객들에게 지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2026년 지역 유망 마이스 행사 육성사업 선정은 새만금 로컬 페스타가 전북을 대표하

는 유망 MICE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뜻깊은 결과”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행사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지역 특화 마이스 행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 새만금 로컬 페스타’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특히 ‘2026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와 동시에 이루어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임근석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가가호호’ 선정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지원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26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家家好妤)’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가가호호’는 주민들에게 친숙한 일상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가족과 이웃 간의 정서적 유대감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재단은 올해 영유아 양육 부모부터 핵가족, 다문화 가구, 은퇴 노부부, 비혈연 공동체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예술 처방전’을 선보인다. 일상에서 겪는 문화적 소외나 양육·은퇴로 인

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다채로운 융복합 예술 체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군민들의 참여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업 기관인 고창군 가족센터를 비롯해 황윤석도서관, 고창군 평생학습관, 고창 웰파크시티 등 지역 내 생활 밀착형 거점 공간에서 진행된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을 통한 가족 간의 긍정적인 교감을 늘리고, 나아가 지역 내 고립된 가구들이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새만금 로컬페스타’ 지역 유망 마이스 선정

전북교육청, 검정고시 합격률 ‘7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8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총 1047명이 지원해 765명이 최종 합격하며 평균 합격률 73.1%를 기록했다. 급수별로는 △초졸 78.9%(76명 중 60명) △중졸 79.1%(182명 중 144명) △고졸 71.1%(789명 중 561명)의 합격률을 보였다.

최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3세 △고졸 12세며,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0세 △중졸 79세 △고졸 79세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검정고시 시행 이래

전국 최초로 ‘함께하는 합격증서 수여식’을 진행한다. 급수별 최고령 합격자 9명(각 3명)과 장애를 가진 고졸 최고령 합격자 1명 등 총 10명을 직접 찾아가 합격증서를 전달 예정이다.

개별 성적은 오는 28일까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수령을 신청한 합격증서는 오는 22일까지 응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한다.

전북교육청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처음 기획한 방문 수여식이 합격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응원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JBNU-KIST 융합학과’ 인턴, 정규직 채용

‘전북형 워털루 코업’
운영... 2명 전원 입사

전북대학교는 JBNU-KIST 산학연용 융합학과 대학원생들이 지역 기업 인턴십을 거쳐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북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국립대 최초로 ‘학연교수제’를 도입해 설립한 이 학과는 지역 기업인 에너테크인터네셔널(주)과 산학협력 인턴십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원생 2명은 인턴 과정을 마치고 최근 정규직으로 최종 입사했다.

이번 채용은 학기 중 이론 교육과 방학 중 기업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전북형 워털루 코업(Co-Operative Education)’ 프로그램에 따른 결과다. 학생들은 인턴십 기간 리튬이온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리튬이온전(LFP)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 실무를



<사진=전북대학교>

수행하며 기업의 직무 평가를 통과했다. 해당 학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해 대학과 출연연구소, 기업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에너테크인터네셔널 외에도 비나텍(주), 에너이버 배터리솔루션(주) 등 지역 중소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산학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승희 학과장은 “단순한 현장실습

을 넘어 교육과 취업이 연결된 산학연협력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대학과 출연연구소,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델이 실제 취업으로 직결됐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성료’... 활기찬 노후 생활도모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남원시 일원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대회는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탁구, 테니스, 체조, 파크골프 등 총 10개 종목에 노인 약 2000명이 참가,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종목별 경기결과 게이트볼 종합우승은 장수군이 탁구는 익산시가 각각 차지했다. 그라운드골프는 무주군이 우승을 차지했고, 체조는 고창군에게 돌아갔다.

테니스는 전주시가 파크골프는 익산시가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정읍시는 고리걸기와 투호에서 우승했다.

대회 참가자 중 최고령자에게 주어지는 장수상에는 그라운드골프 종목에 출전한 완주군 양복규(1933년생), 체조 장수군의 길복연(여·1937년생) 어르신이 선정됐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대회를 통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하안양옥집, 31일까지 기획전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복합 문화공간 하안양옥집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기획전시 ‘작은 만남에서, 우리의 바다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하안양옥집 공간 자체가 한 권의 그림책이 된다는 컨셉으로 기획됐다. 이를 통해 바다와 지구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한 가족으로 연결됐다는 공존의 메시지를 담아낼 예정이다.

전시에는 지역 기획자인 책마을해리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경균 교수, 이우현 작가가 참여한다. 두 작가의 대표 동화책 서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관람객들이 공간을 이동하는 동안 마치 동화책 페이지를 넘기듯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정철 기자

△책마을해리는 책과 공간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전시 전반의 서사를 설계했다. △이우현 작가는 ‘HELP!’를 통해 전북 서해안의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를 모티브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김경균 작가는 바닷가에서 수집한 씨글래스(바다유리)를 활용한 공예와 서사를 통해 버려진 것들에 깃든 생명력과 환경의 연결성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작은 만남의 조각들이 모여 우리가 소중한 공동체임을 깨닫는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이 기록들이 우리 안의 생명력을 깨우고, 공존의 길을 찾는 따뜻한 희망의 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백성의함성, 나라를 깨우다”

‘동학농민혁명 130년의 울림’

1894년 봄, 백성들은 부패한 권력과 외세의 침탈에 맞서 떨쳐 일어났다.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외침 아래 평등과 정의를 향한 길을 열었다.그들의 투쟁은 오늘의 민주주의와 시민정신으로 이어지며, 매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기억되고 있다.

익산사랑장학재단, 대학생 응시료·자격증 취득 등 지원

익산시가 지역의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의 도전과 자기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1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 상반기 도전인재 장학생'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선발 방식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성적 달성 시점에 맞춰 보다 적기에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장학생 선발 대상은 익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한국폴리텍V대학 익산캠퍼스 재학생이다.

선발 분야는 △응시료 지원 분야(1인 최대 10만 원)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우수 분야(1인 50만 원) 등 두 가지이며, 국가기술자격증·전문자격증·공인어학시험 등을 응시하거나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재단은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순에 최종 장학생을 선정하고, 6월 말까지 응시료 지원금 및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세부 자격 요건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사랑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오는 12~14일까지 모집

군산시는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국가유산을 알릴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생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존 활동 해설사들의 졸업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산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가운데 국가유산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2일부터 14일까지이며, 군산 시청 누리집 공유누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국가유산의 이해 △국가유산별 해설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은 '군산 국가유산 여행' 기간인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구 군산세관 본관 등 4개 국가유산 현장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해설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김영효 문화예술과장은 "지역 초등학생들이 국가유산 여행을 찾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직접 국가유산을 설명하며 지역 문화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보석박물관, 대구와 소장품 교류 및 관광 공동 추진

익산보석박물관과 대구 달성화석박물관이 지난 8일 전시 역량 강화와 소장품 교류를 통한 자연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류 전시 △지역경제 활성화 △교류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대외 홍보 등 상호 발전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익산보석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추진하는 '2026 공·사립·대학 박물관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익산보석박물관은 우수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확산 및 박물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달성화석박물관과 협력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열리는 기획전시 '수정(水晶)이 필요해'는 내달 5일부터 8월 30일까지 익산보석박물관에서 먼저 개최된 뒤, 9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달성화석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관람객을 만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달성화석박물관의 광물과 보석 원석 등을 익산에서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보석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정읍, 재난 대비 총력 2(題)

군산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강화

군산시는 지난 8일 오후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군산시 주요 부서를 비롯해 제106보병여단 1대대, 제11해안감시기동대대,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등 6개 유관기관과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건설기계 협약업체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석했다.

군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5개 분야 12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시는 현장 중심의 사전 대응 강화를 위해 비협업 부서 재난관리 인력의 효율적 배

치와 주요 침수구역 확대 지정 등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관·군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군부대는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복구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고, 경찰과 소방은 취약지역 출입 통제와 긴급구조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건설기계 업체는 복구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에 구축에 뜻을 모았다.

김영민 부시장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임근석 기자

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준비

정읍시는 오는 22일 열리는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앞두고 두 차례의 전문자문과 기획 회의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훈련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위험과 산사태 발생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정읍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동 주관하며 19개 기관과 단체에서 310여 명이 참여한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1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차 자문과 기획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중앙평가위원을 비롯한 외부 자문위원 4명, 건축·전기 기술사와 공학박

사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훈련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 26명이 모여 기관별 역할, 장비 동원 계획, 현장 훈련 시나리오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본 훈련은 오는 22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재개발원 일원에서 치러진다.

시 관계자는 "두 차례의 자문을 통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시나리오를 보완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면서 "실제 재난 상황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기관 간 협업 역량과 현장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공약 이행률 '94.3% 달성'

공약이행 평가 우수... 책임행정 결실

익산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책임행정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발표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등급(A)을 획득했다. 특히 94.3%라는 압도적인 공약 이행률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위대한 익산'을 향한 집념의 결과물이다.

익산시 책임 행정의 동력은 '투명성'이다. 시는 매년 시민들이 직접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며 행정의 문턱을 낮췄다. 체계적인 공약 관리 시스템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혁신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 누적 발행액 2조 5,00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된 지역화폐 '다리로움'과 글로벌 기업 코스트코 유치 확정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KTX 익산역 대합실 증축 등 광역 환승 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호남의 관문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과 국내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은 익산을 대한민국 바이오·식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켰다.

도농복합도시 익산은 농촌에서 더욱 섬세하게 정책을 펼쳤다. 작은 농가의

판로까지도 책임지는 '마을전자상거래'는 농촌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 됐다.

70여 년 난재였던 왕궁면 축사 매입을 완료하고 생태를 복원하며 환경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으며 전국 최초 '청년시정'을 조성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격상시켰다.

또한 임신단계부터 출산 후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아이기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년의 성과가 익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익산시는 언제나 현장에서 시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등록

"민선 8기 성과, 민선 9기로 이어가겠다"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정읍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8일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학수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지난 4년은 정읍의 오늘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 온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기반 위에 정읍의 더 큰 미래를 완성해 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는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민선 8기 정읍시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주요 성과로는 △2026년 국가

예산 역대 최대 6,383억 원 확보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 △재정 혁신을 통한 4년 연속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첨단산업기반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정읍은 중요한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정읍역시 미래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선 9기에서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태인 신규산업단지 33만평 조성과 첨단산업 기반 확대 △청년 반값 주택 공급 및 정주여건 개선 △아이 성장 지원 강화 △동진강 수변공원 및 내장저수지와 정읍천 개발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 중심 행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선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시민의 삶이었다"며 "오늘까지 끝까지 시장직을 유지하며 한 곳이라도 더 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현장을 직접 돌러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누가 실제 성과를 만들었고, 누가 정읍의 변화를 끝까지 책임 질 수 있는지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시작보다 지속이 더 중요하기에, 민선 8기의 성과를 멈추지 않고 민선 9기로 이어가겠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답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

군산시가 올해 '수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어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조간블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 어선용 어선용 연안어업 또는 연안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대상이 되며,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조간블리지역 직불금'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간블리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가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전년도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승선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대상이다. 세부 조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어선의 선적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어업정책과에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시 '꿈의 스튜디오' 선정

청소년 창작교육 확대

익산시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26 꿈의 스튜디오 운영사업'에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신규 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꿈의 스튜디오'는 예술가의 작업실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이 창작 활동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예술가와 지역 문화지원을 연계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익산문화관광재단은 5년간 총 5억 6,000만 원(국비 4억 원, 시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각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창의성과 표현력을 높이고,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예술가의 작업실이라는 살아있는 창작 공간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예술적 경험을 넓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병원동행서비스 고항사랑기부금 지정기부



<사진=정읍시>

정읍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추진

고항사랑기부금 지정 기부금 투입

정읍시는 고항사랑기부금 지정 기부금 7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료 기관 방문을 돕는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교통 약자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통합 돌봄 사업 대상 어르신 등에게 병·의원 진료와 약국 이용에 동행 편의를 제공한다.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은 장기요양 등급자, 등급 외자, 퇴원 환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 지원을 통해 평생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내도록 돕는다. 시는 지난 3월 27일 본사업 시행에 따라 현재 200여 명의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동행 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기금을 활용해 차량을 사들일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참여자 10명을 '동행 관리자(메니저)'로 배치해 희망 대상자에게 자택에서 병·의원이나 약국을 거쳐 귀가하는 절차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청소년이 체감하는 정책 만든다

익산시가 청소년들의 행복한 일상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익산시 청소년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2021년부터 시행된 제1차 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2차 익산시 청소년 정책 계획(2026-2030)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됐다.

시는 제1차 정책을 통해 △청소년 자치공간 '다꿈' 조성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꿈뜰' 조성 △농촌지역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등 청소년 복지와 활동 기반 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청소년 욕구조사와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방향'에 맞춰 마련된 4대 전략목표와 16개 핵심과제, 65개 세부사업이 제시됐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주도성 및 리더십 단계별 성장 체계(패스웨이) 구축 △익산형 통합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청소년 참여 확대와 안전망 강화,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 집중 점검

정읍시는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부적합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취급 업소 62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약사 감시를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은 가축 사육과 진료 과정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품목이다. 허가 제품 판매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공중위생과 동물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점검 대상은 관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동물용 의약품구 판매업소 등이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운영 환경이 열악할 수

는 도매상은 전북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의약품 보관과 관리 상태, 무허가 제품 취급 여부, 처방대상 의약품 판매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반면 무허가 제품 판매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유통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비롯한 엄정 조치를 내린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약사 감시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고창군-한빛원전, 상생협력 '순항'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컨벤션센터 건립 등 300억 규모 사업 추진

고창군이 한빛원전 인접 지역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발전 협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 2016년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본부가 지역사회 간의 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300억원 규모의 '지역 상생발전 협력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간 고창군은 2019년 마을방송망 설치사업(10억원), 2023년 노동저수지 재해 대비 개보수사업(50억원), 2025년 구시포 위판장 건립사업(40억원)을 통해 재난대

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6과 컨벤션센터 신축사업은 지역 상생발전 협력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심원면 만돌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은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생태복합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2016년 협약 당시부터 대형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고창군에 투자하는 숙박전문업체와 함께 지원 추진하도록 계획됐다.

사업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형숙박시설 유치'와 국내·외 행사를 치르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만큼, 고창해안권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또한 고창군은 올해부터 원전 주변 지자체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약 24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도 거뒀다.

이는 그동안 원전 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에서 소외됐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창군이 중앙부처와 국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설득해 온 '적극 행정'의 결실이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세는 일회성 예산이 아닌 매년 확보되는 정기적 재원으로, 향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상생협력 사업과 이번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적극행정 종합평가 '장관 표창'

5년 연속 우수기관... 독보적 행정력 입증

부안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실적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에 근거해 적극행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으며, 부안군은 군(郡) 단위 평가군에서 상위 6위 이내에 이름을 올리며

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부안군은 지난 2021년 하반기 성과검점부터 이번 종합평가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3년 연속 종합평가 장관 표창까지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적극행정 선도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부안군은 5대 항목 18개 지표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거둔 가운데, 특히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통해 우수공무원을 선발·우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민간·국민 평가단이

직접 참여한 우수사례 심사와 국정과제 추진 등 행정 전반에서 고른 기량을 발휘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장관 표창 수상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성원이 합쳐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부안군의 공직 문화로 완전히 뿌리내려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미래산업 로드맵 마련 '본격화'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8일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김제시 미래산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이현서 부시장을 비롯해 전북테크노파크 이승인 정책기획단장, 전북연구원 이지훈 박사, 관련 국·소·실·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추진방향과 주요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김제시가 집중해야 할 전략산업과 실행과제 발굴 방

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용역은 '김제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이후, 김제시 전략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김제시가 기존에 중점 추진해 온 특장차, 농생명, 건설기계 등 산업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새롭게 보완이 필요한 분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과 실행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산업환경과 기술 트렌드, 중앙정부 및 전북도 정책 방향, 김제시 산업 여건과 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피지컬 AI,

자율주행,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변화에 대응할 전략산업 후보군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비전과 목표, 연차별 실행과제, 재원 확보 방안, 추진체계를 담은 실행 중심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대응, 기업 유치, 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이번 용역은 김제시 전략산업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5년간 어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격포2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난개발 방지체계적 개발 유도... 지역 활성화 기대

부안군은 변산면 격포리 격포해수욕장(구 집단시설지구)일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격포2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수요 증가와 개발압력에 대응해 무분별한 개별 개발을 예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획 대상지는 변산면 격포리 격포해수욕장 일원으로 군은 이번 계획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한편 쾌적한 경관 형성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상업시설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개발밀도를 높이고 관광·상업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부안군이 격포2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사진=부안군>

건축물의 용도·배치·높이·경관계획 등 건축물용도에 검토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또 상업시설 밀도 강화에 따라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며 지역 내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온봉기 기자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지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갯벌 '자연의 소리로 걷는다'

17일 24일 사운드워킹 운영

고창군이 갯벌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창갯벌 사운드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창갯벌 사운드워킹 프로그램'은 갯벌을 걸으며 바람, 물결, 생물의 소리 등 자연의 다양한 소리에 집중하는 체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사운드워킹 소개와 함께 녹음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참가자들은 소리산책을 통해 자연의 소리를 채집한다. 이를 활용한 사운드영상과 컬러링북 활동을 통해 감각적 경험을 확장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상반기에는 총 2회에 걸쳐 운영되며, 1회차는 오는 17일, 2회차는 오는 24일 탐사르고창갯벌센터 및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를 직접 듣고 체험하며 교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태관광 콘텐츠"라며 "고창갯벌이 자연의 생생한 소리를 매개로 다양한 생태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효충사 석전대제 봉행 '선현 추모에 힘쓸 것'

제주고서 문충공파 부안참판공중 증대문 중(대표 고강형)은 지난 8일 부안군 하서면 효충사에서 제주고서 문충공파 종손을 비롯한 향교 유림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회 장군 등 4봉군의 님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분향과 강신을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중헌례, 음복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통 제례 절차에 따라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다.

효충사는 하서면 청호리에 위치한 사당으로,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후위한 공로로 효성공신에 오른 조선 중기 무신 영성군 고회 장군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곳이다.

이곳에는 고회장군을 비롯한 4봉군을 모시고 있으며, 매년 제향을 통해 충절과 호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고회 장군과 선현들의 충절을 기리는 제례를 통해 후손과 지역사회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계승과 선현 추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뚝딱이 봉사단' 주거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나서

김제시가 농촌지역 주거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생생마을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석)가 주관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생활밀착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현장 활동으로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4월 교육을 이수한 13명의 활동가들은 공구 사용법과 목공 기초, 방충망 교체, 생활 전기, 살리큰 시공, 타일 및 수전 교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집수리 기술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혔다. 이들은 앞으로 '뚝딱이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 집수리 지원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봉사단 운영에 앞서 서비스 신청 마을을 모집했으며, 80세 이상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약 100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집수리 활동을 통해 주민이 기술을 배우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생활형 공동체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주민이 주민을 돕는 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행

고립 위기가구 모니터링 전달된다.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우편물이 쌓여 있거나 위기징후가 포착될 경우 시청 주민복지과로 통보하며 시는 읍면동과 연계해 초기상담을 실시해 긴급위기상황 응급조치가 이뤄지며,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편서비스를 통한 작은 관심이 고립된 이웃에게는 생명의료 안부 우편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편물에는 정서적 위로를 담은 안내문과 김제시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혜택 정보가 담겨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간편식품도 함께

김제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고독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김제 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김제형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지난달 1회차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10회 집중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김제시와 우체국의 행정망을 통합한 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대상 가구에 월 1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김제형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지난달 1회차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10회 집중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김제시와 우체국의 행정망을 통합한 복지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대상 가구에 월 1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김제형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지난달 1회차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10회 집중 시행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총력'

비상방역체계 운영

고창군이 오는 9월까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군은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 대책반'을 편성하고, △상황총괄반 △역학조사반 △방역대응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감염병 발생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등 초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관광지, 물놀이 시설 등 감염병 취약지역에 대해 방역기동반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민 대상 감염병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올바른 손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끓인 물 또는 안전한 식수 섭취,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조리도구 위생관리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 홍보하고 있다.

고창군 보건소는 설사, 구토, 발열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은 감염병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음식문화개선 실천 희망 업소 모집

6월 5일까지... 20개소 선정

김제시보건소는 낭비 없는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과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문화개선 실천 업소'를 오늘부터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일반식사를 제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 2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위생적인 식문화 실천을 위한 포장용기, 포장봉투, 개인위생장기 등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 실천을 위한 홍보물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참여업소는 적정량 제공, 남은 음식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을 준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참여 신청서 및 실천약서를 작성해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leeyesol12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20개소 선정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외식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음식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마실축제, 지난해대비쓰레기 배출량 7.9톤 ↓... 친환경운영성과

부안군은 2026년 제13회 부안마실축제 기간 동안 대화용기 사용을 적극 추진한 결과, 방문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줄이며 친환경 축제 운영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지역축제장 내 대화용기 지원을 통해 대화용기 제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1회용품 폐기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으며, 행사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을 구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대화용기 공급부터 회수, 세척, 재공급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전문 용역 체계를 운영했다.

축제장 내 음식 판매부스를 중심으로 대화용기를 공급하고, 별도 반납 부스를 이용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대화용기를 이용해 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부안마실축제 방문객 수는 약 25만1천명으로 지난해 19만명 대비 약 6만명 증가했으나, 축제기간 4일동안 발생한 쓰레기 배출량은 18.5톤에서 올해 10.6톤으로 약 7.9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 관계자는 "방문객은 크게 늘었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해 대화용기 사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 운영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대화용기 사용 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유의식, 군수 출마 선언 “완주 지키겠다”

통합반대위 ‘범군민후보’ 추대 수락 “통합 반대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 단일화 논란엔 “합의 위반” 지적



유의식 군의장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지난 8일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의 범군민후보 추대를 전격 수락하며 완주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의장은 이번 출마를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완주를 지키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규정하며 완주 수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 의장은 “지난 2년여 동안 완주군의회 의장으로서 완주·전주 통합 반대운동의 최일선에서 군민들과 고티를 함께해 왔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리와 천막농성장에서 완주의 자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 온 만큼, 이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다 하고자 한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특히 유 의장은 이돈승·서남용·국영석·임상규 등 통합반대위 자원위원들의 성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완주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최근 국영석 전 고산농협조합장 축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유 의장은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인 조사와 결과 발표가 강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유 의장은 “대화의 문은

끝까지 열려두겠다”며, “국 전 조합장 축이 내일까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논의에 나선다면, 기존에 합의된 방식에 따라 단일화를 마무리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로 확정된 유희태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현재 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전북지방경찰청 반복패수사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민들의 행정 불신과 도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 대해서는 “민심과 괴리된 경선 틀 속에서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높은 군민 지지를 받았음에도 경선 구조의 한계로 뜻을 펼치지 못한 이돈승 전 후보와 정책연대를 통해 완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결혼·출산주거 ‘생애주기 맞춤 지원’

결혼축하금 최대 500만원 ‘출산급여’ 등 정주여건 강화

완주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에서 출산, 주거, 양육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정책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결혼 축하금(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을 위한 출산 장려금(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600만 원)과 첫 만남 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지원 대상에 부합할 경우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도비 매칭 사업인 신혼부부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 급여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사업별 공고일과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 가족육차량(매일리카) 지원 사업은 이미 접수를 마감했으며, 향후 심사를 거쳐 최대 25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발굴해 살기 좋은 완주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현대 불화 한자리에’ 옥천골·섬진강미술관 기획전

순창군이 오는 6월 14일까지 순창공립미술관 본관(구 옥천골미술관)과 섬진강갤러리(구 섬진강미술관)에서 현대 불교미술 기획전을 개최한다.

본관에서는 장지명 작가와 협업한 ‘여래가 된 별님 치성 展’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전통 불화 속 칠성신앙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신앙과 일상 속에서 이어져 온 발원의 마음을 풀어냈다.

전시는 과거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북두칠성을 향해 기도하던 모습을 주요 이야기로 구성했다. 특히 순창의 장류 문화와 연결된 장독대와 맑은 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지역만의 고유한 정서를 강조했다.

장지명 작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세대를 이어온 어머니들의 기도와 정성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섬진강갤러리에서는 ‘봄빛에서 피어난 꽃 염원 展’이 함께 열린다. 현대 불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전통 불화의 정신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다양한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문의는 순창공립미술관 또는 섬진강갤러리로 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고용률 73.6%...일자리 목표 초과 달성

관광·농업 연계 일자리 확대 노인·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

순창군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해 2025년 일자리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군이 발표한 ‘2025년 순창군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만 6,400명으로 집계돼 당초 목표인 1만 6,100명을 넘어섰다. 고용률 또한 73.6%를 기록하며 목표 대비 103%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민선8기 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순창발효테마파크와 강천힐링스과 운영, 스포츠마케팅 확대 등 관광·문화 분야 정책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발효테마파크는 체형·관광 프로그램 운



<사진=순창군>

영을 통해 관광객 유치 효과를 높였으며, 강천힐링스과는 누적 방문객 55만 명을 기록하며 지역 관광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과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운영, 농기계 작업단 지원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3,380개의 일자

리를 제공했으며, 여성 취업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 지원도 함께 추진됐다. 청년층을 위한 창업지원과 직업교육훈련, 청년근로 종사부장 지원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도 병행했다.

군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보건소·의료원·소방서·공조 이동진료소 의료지원 417건

남원시 보건소는 제96회 춘향제 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협업체를 방문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통합 의료지원 체계를 운영했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 현장에는 보건소를 주축으로 남원의료원, 남원소방서 총 89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돼 축제장 안전을 사수했다.

유관기관인 남원의료원과 축제장 내 주요 거점에 이동진료소를 공동 운영해 처치, 투약, 건강상담, 의료가 관 후송 13건 등 총 417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관내 약사회는 이동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의약품과 구급 물품을 제공하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사진=남원시>

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으로 확보와 현장 구조 활동을 통해 긴급 이송 체계에 총력을 기울였다.

남원시 보건소장(한용재)은 “이번 의료지원은 사전부터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공유하고 전문성을 결집시켜 많은 의료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축제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춘향제서 글로컬캠퍼스 문화교류 활동

유학생·관계자 140여명 방문 문화체험으로 지역 이해 높여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 기간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신입생 및 관계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남원시 일원에서 문화체험 교류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춘향제 개막식 참석을 중심으로 신입생들이 남원의 대표 축제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함께 추진 중인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춘향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의 열기를 함께 나누고, 광한루원 일대에서 공연·체험·먹거리 프로그램과 한복체험 등을 즐기며 남원의 문화관광 자원을 경험했다. 또한 피오리움과 김병중 미술관을 관람하는 등 지역 문화시설을 둘러보며 남

원의 생활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에는 2026년 1학기 신입생 171명이 입학해 현재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남원글로벌캠퍼스 리모델링 완료 시점에 맞춰 남원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번 교류행사는 신입생들이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향후 남원에서 생활과 학업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원시장 최경식은 “춘향제 개막식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남원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남원시민이 전북대학교 남원글로벌캠퍼스 유학생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컬캠퍼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춘향제 세일페스타 ‘상생의 장’ 경제효과 톡톡

지역 22개 기업 참여 물품 후원 축제기간 매출 3억원 증가 집계

제96회 춘향제와 동행축제를 연계해 진행된 ‘춘향제 세일페스타’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남원시는 축제 기간(4월 30일~5월 6일) 동안 원도상 삼권 이용객을 대상으로 남원사랑상품권 추가 캐시백 적립, 영수증 톡렛 이벤트 등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남원시 관내 22개

기업들이 3천만원 규모의 자사 생산 제품을 후원하며 총 1,500명의 관광객이 물품 이벤트 상품을 받아 갔으며, 이를 통해 남원시 관내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관광객은 혜택을 가져가는 지역 기업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동행’의 의미를 깊게 새겼다.

또한, 소비 촉진의 핵심 기제였던 남원사랑상품권 추가 캐시백(2%~10%) 혜택은 축제 기간 중 약 3억원의 매출 증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 되었다.(캐시백 적립 약 24백만원) 이는 원도상 삼권 내에서 활발한 소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지표로, 고물가 시대에 방문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라는 단비 역할을 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식사 후 받은 영수증으로 남원 기업이 만든 품질 좋은 기념품을 받게 되어 기쁘다” “캐시백 혜택 덕분에 축제를 더욱 가볍게 즐기는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춘향제 세일페스타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어졌음을 증명하는 지표로, 고물가 시대에 방문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라는 단비 역할을 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식사 후 받은 영수증으로 남원 기업이 만든 품질 좋은 기념품을 받게 되어 기쁘다” “캐시백 혜택 덕분에 축제를 더욱 가볍게 즐기는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춘향제 세일페스타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AI 스마트축산으로 한우 등급 올린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선정 국비 1억2100만원 전액 확보

완주군이 조달청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에 최종 선정돼 인공지능(AI) 가족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첨단 스마트 축산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군은 조달청으로부터 국비 1억 2,100만 원을 전액 지원받아 관내 한우 농가 5개소에 ‘AI 기반 가족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향후 10개월간 실증 과정을 거친다.

이번 사업은 농가에서 제한한 혁신 기술 도입을 군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자체 공모 사업에 당선된 사례다. 군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추진해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뒀다.

특히 완주군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완주 한우의 육질 및 육량 등급 향상을 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완주군의 한우 1++ 등급 출현율은 34.7%로 전북 평균(40.8%) 대비 낮은 수준이며, 육량 A등급 출현율 역시 29.0%에 머물고 있다.

군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24시간 밀착 관리가 사료 효율성을 높이고 한우의 스트레스를 적기에 해소해 품질 등급 향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도입하는 시스템은 비접촉식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소의 신체에 센서를 부착하지 않아도 카메라가 발정 탐지, 뒤집힘(전도) 사고, 분만 징후, 고열 이상 징후 등을 24시간 감시한다. 이상 발생 시 즉각 스마트폰 알림을 보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번 사업은 한우 수급 증진을 통한 한우 발전 방안 5개년 수급 연구 용역’ 실증 데이터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난산 사고 방지와 비육우 폐사 예방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개별주택 10,005호 대상 공개

순창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균형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reatl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총 10,005호이며, 전년 대비 0.91% 올랐고, 주택수는 58호 줄었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을 재차 확인하고 주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

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일한 기간에 운영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상담 등 안내는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251-220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시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근거로 활용된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누에 ‘2026 조각페스타’ 전북 지역 작가 12인 작품 전시

(재)완주문화관광재단 북학문화지구 누에에는 오는 6월 28일까지 기획초대전 ‘2026 완주 조각페스타’를 열고 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누에아트홀 1·2전시실과 중앙홀, 북학문화지구 누에 야외정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실내와 야외 공간을 아우르는 대규모 조각·설치 전시로 전시장 내부뿐 아니라 야외정원까지 전시 공간을 확장해 자연과 공공공간 속에서 조각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6 완주 조각페스타’는 완주 및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설치·조각 작가 12인이 참여해 지역 조각예술의 현재를 조명하고,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조각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작가는 권성수, 김성석, 문혜린, 박경덕, 박창은, 소윤수, 이수진, 임민택, 최무용, 최승일, 최용선, 황상태이며, 야외작품 28점과 실내작품 30점 등 총 5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기간 동안 ‘12시의 미술관’, ‘조각체험 워크숍’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완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지역 조각예술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고, ‘전라북도 조각페스타’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장계면, 2026년 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장수군 장계면은 '제36회 장계면민의 날'을 앞두고 지난 7일 지역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김정동 씨(문화체육장),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산업공익장), 신정순 씨(에향장)를 각각 면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문화체육장에 선정된 김정동 씨는 1996년 장계근보조회 상회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풍물문화 보급과 발전에 헌신해 왔으며 계남 풍물단을 시작으로 장수·계북·번암 풍물단 창단에 기여하며 지역 풍물문화의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풍물대회에 참가해 장수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장려상과 우수상 수상에 이어 지난해 대상까지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공익장에 선정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대표 김진갑)은 2007년 3월 설립된 국내 내륙 최대 규모의 말 교배 및 육성지로 장계면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향장 수상자인 신정순 씨는 장계면 금정마을 출신으로 재경장계면향우회와 재경장계초등학교 총동창회 활동에 20여 년간 참여하며 고향 발전과 향우 간 화합에 앞장서 왔다.

또한 재경장계총동문회 제16대 회장을 역임하며 장계면의 발전과 지역 공동체 결속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북부권노인복지관, 2026년 팔도문화탐방 진행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관장 정학성)은 지난달 30일 지역 내 저소득 및 홀몸어르신과 복지관 이용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팔도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간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어르신들은 전라북도 부안과 군산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즐겼다.

탐방 코스는 부안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람, 선유도 유람선 탑승을 통한 고군산군도 해상 절경 감상, 새만금종합수산물시장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유도 일대에서는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일사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 적극 참여 당부

진안군은 주민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승인통계 조사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역에 필요한 보건사업을 발굴하고 건강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진안군 조사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870명이다.

대상 가구는 통계적 표본추출 방식에 따라 선정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조사에 앞서 가구선정통지서와 안내 책자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정신건강, 만성질환 여부 등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진안군보건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 건강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총력

행안부 등 전문가 컨설팅 완성도 높은 투자계획 수립

무주군이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주민 의견 수렴, 부서 협업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가능성을 높인다는 각오다.

5월 중순에는 행안부, 전북연구원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 맞춤형 핵심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청년 중심의 로컬 브랜드

및 지역 재생 프로젝트 추진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업 추진 타당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전략회의를 열어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기조와 평가 기준을 분석·공유했으며, 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사업 전략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3월 19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여건 분석과 중점 투자 방향 설정, 핵심 사업 발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이 실질적인 효

과를 제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청년·일자리 분야 실무진 등 민간 운영 주체와의 협업 체계 구축, △청년 정착 유도 방안 및 청년 지원 사업 등이 공유됐다.

최재경 인구협력과 인구정책팀장은 "지속 가능한 무주 발전을 위해 행정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무주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며 "2027년 지방소멸기금 확보를 통해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고 군민이 행복한 무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마른논 썩레질' 기술 보급

농촌 일손 부족 해소 탄소중립 '두 토끼' 잡는다

임실군이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농업인 '마른논 썩레질' 기술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8일 오수면 신기리 일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농가와 지역 농업인,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른논 썩레질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시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일손이 집중되는 4월부터 6월 사이, 기존의 물 썩레질 공정을 생략함으로써 노동력 분산 및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른논 썩레질'은 논에 물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저 균경기 등 전용 장비 활용해 논바닥을 평탄하게 고르는 공법이다.

'마른논' 썩레질 공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시간 단축이다.

기존 관행 농법이 썩레질 작업에 약 10~12일이 소요되었다면, 마른논 썩레질은 이를 5~6일 수준으로 약 50%가량 단축할 수 있다.

환경적 가치 또한 주목할 만하다. 기존 물 썩레질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비점오염)으로 지적되어 왔다.

반면, 마른논 썩레질은 부유물질 농도를 기존 대비 약 98%까지 감축할 수 있어 하천 생태계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농업 분야의 해묵은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 논에서 발

생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을 3~6%가량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저탄소 농업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시연회 현장에서는 균경기를 활용한 실제 논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농업인들은 기계 조작법과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비 운용의 경제성과 환경적 가치를 직접 확인한 농가들은 도입 의지를 적극 내비쳤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안성면 공정리 '에코벨리지' 조성 박차

55억 투자 친환경 마을 조성 지방소멸 위기 적극 대응

무주군이 안성면 공정리에서 추진 중인 '에코벨리지 2차 조성 사업'이 적극 행정 실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단독주택 40호(부지면적 56,747㎡)에 친환경 신규마을이 조성된다.

무엇보다 은퇴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는 철도·성토를 통해 용지를 마련(토공)하는 단계이며, 올해 말부터는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구축과 도로·조경 공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무주군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 1회 공청회의를 의무화하고 현장 중심의 즉각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통상적인 공공



사업 대비 사업 추진 속도를 15% 이상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담당 부서가 주 5회 현장 상환을 수시 점검하는 등 밀착 감독해 문제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적극 행정을 펼친다.

박은석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

력교장은 "무주를 귀농귀촌 최우선 선택지이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 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단지 완공에 그치지 않고 분양 활성화와 전략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병행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민관 합동·현장 중심 점검

장수군은 재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전통신장, 공사현장, 다중이용업소 등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7개 분야 총 9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수군은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군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별 특성과 위험 요소를 면밀히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정밀진단과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군민이 직접 안전 점검 대상을 신청하는 '주민 점검 신청제'를 운영해 군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 점검 신청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군이 직접 대상지의 안전 점검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장수=최진수 기자



<사진=임실군>

임실군청 사격팀, 전국사격대회서 쾌거

10m 공기권총 단체전 2위 등

임실군청 사격팀이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NH농협은행 전국사격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 입상하며 전국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이번 대회에서 임실군청 사격팀은 대회 첫날 25m 화약권총 종목에 통해 예열을 마쳤으며, 5월 2일 진행된 여자 일반부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특히 10m 공기권총 종목은 각 팀

상위 3명의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단체전에서 임실군청 선수들이 고르게 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단체전 2위(은메달)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개인전에서의 성과도 이어졌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 출전권을 확보한 추가는 선수수는 10m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3위에 올랐다. 추가는 전수는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치러진 첫 전 국가대회에서도 입상권에 이름을 올리며 최상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펼쳐

의료원 내원 어르신대상 치매친화적분위기조성목적

무주군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무주군보건의료원 1층 정문에서 '기억꽃 피우기'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무주군 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치매에 대한 어르신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치매 친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건의료원 내원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치매 예방수칙(3.3.3 안내분)을 공유했다.

또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을 테마

로 한 포도 존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즉석 치매 선별검사(CIST), 1:1 맞춤형 검진을 시행했으며 인지 저하 의심 시 진단 및 검별검사 절차도 안내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김 모 어르신(82세, 무주읍)은 "나이가 들면서 내일이 될까봐 걱정하는 게 바로 치매"라며 "그래서 검사받기도 꺼렸는데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치료를 서두르면 진행도 늦출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안심했고 치매안심센터에도 꼭 한 번 가볼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라인UP' 운영

장수군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라인UP' 프로그램을 오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다수후군 고위험군과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

다.

주요 내용은 △체성분 검사 및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검정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른 1:1 맞춤형 건강상담 △라인댄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영양교육 및 저염식 실습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개선 △만성질환 예방과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통합 건강관리 교육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연장농공단지 임대공장 사전 수요조사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추진

진안군이 지역 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연장농공단지 내 임대공장 및 스타트업 사무실 입주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진안 연장농공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에 앞서 실제 입주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11일부터 오는 22

일까지 2주간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농공단지 입주 허용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대공장 12실과 지식·ICT 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사무실 9실에 대한 입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진안군 내 사업자와 관내 이전 예정 기업, 실행력 있는 예비 창업자 등이며, 접수는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김제 백구면 (주)맥스원, 따뜻한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맥스원(대표 전양호)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정기탁금 100만원과 선물세트 40개를 기부하며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주)맥스원은 해마다 백구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선금과 물품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역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보탬이 되고자 지정기탁금 100만원과 선물세트 40개를 전달해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에 기탁된 지정기탁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함께 전달된 선물세트 40개는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가구에 전할 계획이다.

전양호 (주)맥스원 대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성내면지사협, 어버이날 '삼계탕 효나눔 행사' 개최

고창군 성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부문위원장 이남례, 민간부문위원장 최인주)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성내어울림체육센터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삼계탕 효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내면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 350여명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 식사와 함께 다양한 공연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이 보양 삼계탕과 반찬, 떡, 과일 등을 정성껏 준비해 대접하였고, 어르신들에게 뜨겁고 따뜻한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최인주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주)맥시칸, 익산 아동복지시설에 선물 전달

치킨 79상자 소떡소떡 220개 기탁

가정의달을 맞아 익산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는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주)맥시칸(대표 정삼모)이 지역 내 생활시설 아동들을 위해 총 220만 원 상당의 먹거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치킨 79상자와 소떡소떡 220개다. 물품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와 그룹홈 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삼모 대표는 "아이들에게 작

은 행복과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맥시칸에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도 아동복지 향상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맥시칸치킨은 전국 40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하림에서 생산한 국내산 닭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2023년부



터 매년 익산시 아동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인천부안군민회,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고향발전 위한 응원 전례

부안군은 지난 제13회 부안마실축제 기간 인천부안군민회 이명순 회장과 김정열 수석부회장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부안에 전달하며 고향사랑 실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마실축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고향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했다. 또한 기부에 따른 답례품까지 다시 지역

사회에 나누며 고향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인천부안군민회는 평소에도 출향인과 고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행사와 교류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많은 관광객과 향우들이 함께한 이번 마실축제는 지역의 활기와 공동체의 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안=온봉기 기자



/남원=김종원 기자



군산시 한의사회, 아동 위해 성금 200만원 전달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8일 재단법인 대한환경보건원 솔한의원에서 군산시 한의사회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식은 가정의 달인 5월과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산시 한의사회가 기탁한 200만 원의 성금은 드림스타트 대

상 아동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성용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함께 성금을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완주군 청소년 센터 '고래' 하룻길 응원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가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아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하룻길 응원 프로젝트-수고했어 오늘도!'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잠시나마 즐거움과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캠페인 행사다.

지난 7일 고산중학교에서 첫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오는 11

일에는 고산고등학교를 찾아 응원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는 수업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는 학생들이 신나는 음악과 응원 문구가 담긴 현수막, 손으로 직접 만든 피켓으로 맞이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다.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며 간식을 전달하는 등 정성을 더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남원시 드림스타트-이마트, '가족 행복 치팅데이' 운영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화목한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행복 치팅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이마트 남원점의 전액 후원(100만 원 상당)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중 36가정에 특별한 간식 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족 행복 치팅데이'는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뉴인 피자 1판, 닭강정 1팩, 콜라 1.8L를 전달하여 가족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를 후원한 이마트 남원점은 지난 2017년 드림스타트와 첫 협약을 맺은 이래 10년째 꾸준히 후원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아동과 가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부안 변산면지사협, 독거노인 일촌 맷기 사업 추진

부안군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위험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촌 맷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3명과 독거노인 13명이 1:1 결연을 맺고 안부 확인과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위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따뜻한 이웃이 되어드리겠다"고 전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CO₂ 줄이기, 바로 지금 나부터!

우리의 작은실천이 푸른 하늘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一事一言〉



천호성·유성동 후보 단일화의 뒷거래 의혹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한 세대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 교육만큼은 정치적 계산보다 원칙과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 선거와 달라야 한다. 적어도 도덕성과 교육 철학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전북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참 답답하다. 교육의 미래를 논해야 할 선거판이 '야합'과 '자리 거래 의혹'이라는 가장 저급한 정치 언어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천호성·유성동 후보 단일화가 있다. 단일화 자체만 놓고 보면 정치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선택일 수 있다. 선거에서 연대와 통합은 흔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정과 명분이다. 유성동 후보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천호성 후보의 표절 문제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그는 천 후보의 기고문 표절 의혹에 대해 "참답하고 비뚤하다"고 했고, "상습 표절 행위"라고까지 규정했다. 교육자의 윤리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던 셈이다.

그랬던 후보가 하루아침에 "전북교육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손을 맞잡았다. 여기까지도 도민들은 정치적 현실이라며 억지로 이해하려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녹취록 의혹은 상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갔다. 유성동 후보

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단일화와 연대의 대가로 높은 직위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책 연대가 아니라 자리 보장을 전제로 한 정치적 거래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직위를 미끼로 단일화를 추진했다면, 이는 도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자리 나눠먹기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더 심각한 것은 그 무대가 교육이라는 점이다. 아이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계 수장이 되는 과정에서조차 권력 거래 의혹이 나온다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표절 논란 역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표절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교육자에게 표절은 신뢰와 양심의 문제다. 남의 생각과 글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학문의 기본 윤리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그 과정에서 자리 약속 의혹까지 불거졌다면 도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두 후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전북 교육계 전체의 신뢰와 연결된다. 이미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감 선거마저 정치판이 돼버렸다"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교육 정책과 미래 비전은 사라지고, 세력 집과 정치 공학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실

제로 이번 단일화 기자회견에서도 '학생 중심 교육', '교육격차 해소' 같은 원론적 구호만 반복했을 뿐, 왜 과거의 날 선 비판을 접고 손을 잡게 됐는지에 대한 도민 납득 수준의 설명은 부족했다.

교육은 단기간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다. 한 번 흔들린 교육 철학과 행정은 아이들의 미래에 오랫동안 영향을 남긴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만큼은 최소한의 품격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금 전북교육감 선거는 정책보다 정치가 앞서고, 가치보다 계산이 우선하는 모습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결국 교육에 대한 도민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다.

도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누가 진정 교육을 이야기하는지, 누가 권력을 이야기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 교육이 앞으로도 원칙과 가치 위에 설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공정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렇다면 교육감 선거부터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지금 전북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도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한 선거'가 아니라 '권력 거래로 얼룩진 선거'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공정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렇다면 교육감 선거부터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지금 전북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도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한 선거'가 아니라 '권력 거래로 얼룩진 선거'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평화적 집회는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성숙한 민주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집회참가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출 때, 집회는 갈등이 아닌 소통의 장으로 가능하게 된다. 질서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적 집회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어야 하겠다.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황호인

독자투고

평화적 집회를 위한 집회참가자의 자세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 속에서 조화롭게 행사되어야 하며, 평화적 집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회참가자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첫째,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된 범위와 조건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를 벗어나는 행위는 집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손한다. 참가자는 주최 측의 안내와 질서유지요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둘째, 비폭력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물리적 충돌은 집회의 본래 목적을 흐리게 한다.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유지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집회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이지만, 동시에 다른 시민의 일상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소음, 교통 방해, 시설 훼손 등은 최소화해야 하며, 공공장소 이용에 있어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넷째, 책임 있는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집회에서 사용되는 구호, 피켓, 발언 등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므로 사실에 기반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혐오를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록 해야 한다.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주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회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참가자는 개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 등 관계자에게 알리는 등으로 안전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평화적 집회는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성숙한 민주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집회참가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출 때, 집회는 갈등이 아닌 소통의 장으로 가능하게 된다. 질서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적 집회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어야 하겠다.



전북의 곁에서 전북의 이야기를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광교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구독 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사설

공정성 흔들린 경선, 도민 신뢰 잃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폭풍이 거세다. 현직 도지사의 무소속 출마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이어지며 지역 정치권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 갈등으로만 볼 수는 없다. 본질은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이를 바라보는 도민 신뢰의 문제다.

김관영 지사는 대리기사비 논란으로 제명됐다. 반면 경쟁 후보를 둘러싼 식비 대납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으로 정리됐다. 법적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도민 입장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구에게는 엄격했고 누구에게는 관대했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경선 결과의 정당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경선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특히 전북처럼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경선의 의미가 더욱 크다. 사실상 본선과 같은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는 기본 조건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충분한

설명과 설득에 실패했다. 논란이 커질수록 중앙당은 침묵하거나 결과 발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혹과 반발이 이어지는데도 납득할 만한 기준과 판단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도민 사회에서는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냉소까지 나온다.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불신이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결과도 존중받기 어렵다. 더구나 특정 정당이 지역 정치 전부를 사실상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공천과 경선의 공정성이 곧 지역 민주주의의 수준과 직결된다.

지금 전북 민심은 단순히 한 후보의 탈락 여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해야 할 경선이 과연 공정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가벼운 정치적 반발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정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흔들리면 민심은 돌아선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 논란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오늘의시

노래 / 김남주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밭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녘 뒷녘에서 울어에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 번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녹죽(靑松綠竹)
가슴으로 꽃히는
죽장이 되자 하네 죽장이

시인 약력 : 1946년 전남 해남 출생. 1969년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했다. 이 사건으로 1973년 구속되어 전남대에서 제적당한다.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첫 시집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을 출간했다. 1994년 폐장암으로 사망, 광주 망월동 5.18 묘역에 안장됐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원근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창군 청년농업인 지원이 아닌 “성장”을 설계하다

전국 최초 바우처 종료 이후 2년간 정착지원금 추가 지원 전문경영 커리큘럼 ‘청년 CEO육성’·‘청년사립 프로그램’ 등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은 고창군 농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며,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이 농업을 통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성공 모델을 주목받고 있다.

(편집자주)

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에 중점을 두었다.

카페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서로의 작목과 영농 경험을 소개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으며, 체험 활동을 통해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 간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관계 형성의 출발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청년농업인이 정책의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주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이후 현장에서는 작목 정보 공유와 기술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공동 작업과 협업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등 청년농을 중심으로 한 농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창군의 2년 추가 정착지원금과 사립 프로그램은 청년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관계 기반 정착 환경을 조성한 정책으로, 영농 지속 의지를 높이고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업가 마인드 기른다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

고창군은 청년농 정책을 영농 정착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약을 하고 있다.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은 그 정점이다.

단순 재배 기술 교육에서 탈피해 기업가 마인드, 소비 흐름 분석, 유통 전략, 세무·회계, AI 활용 등 농업경영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경영 커리큘럼(12회, 40시간)을 도입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유통·수출 전략 수립 등 청년들이 자신의 농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고창군은 올해 청년농업인 육성의 방향을 단순한 지원에서 성장과 자립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소득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 40명을 우선 육성한 뒤 2027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스마트팜 구축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농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생산성과 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 지원, 창업 지원,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정책도 병행 추진하며,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정책과 청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청년 영농정착률 96.8%의 비결, ‘골든타임’을 공략했다
고창군은 2018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하의 18세~39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110만 원(최대 3년)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6명의 청년창업농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151명이 영농을 지속하면서 정착률 96.8%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청년농들이 가장 흔히 겪는 위기는 정부 지원(바우처)이 끊기는 3년 차 직후다. 고창군은 이 지점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과감한 행정 결단을 내렸다. 소득 공백의 제로화: 전국 최초로 바우처 종료 청년농에게 2년간 매월 5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영농 초기 이후 발생하는 경영 불안 원천 차단했다. 또한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청년농의 정착 유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또한 경영·교육을 연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업 선배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전수와 현장적응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영농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청년이 농업을 선택한 이후에도 행정과 지역사회가 일정 기간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이 청년에게 단기 생계수단이 아닌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청년창업농의 정서적 안착에 주목

고창군은 귀농 청년들이 겪는 고독과 정보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형성’에 주목했다. 일상적 소통의 장, 딱딱한 강의실이 아닌 카페 등 편안한 공간에서 작목 정보와 영농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사립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장벽을 허물었다.

청년 사립 프로그램은 2025년에 총 6회, 20명의 청년농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